

보도시점 2025. 5. 27.(화) 12:00 / 배포 2025. 5. 27.(화) 08:30
< 5. 28.(수) 조간 >

(주)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부당 감액,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기간(2020. 5월 ~ 2022. 1월)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책임자	과 장	장혜림 (02-2110-6160)
		담당자	조사관 (조사관	류진영 (02-2110-6195) 김훈형)



1**법 위반 내용****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 (주)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잠금잠치 기능이 있는 너트 4종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 이 사건 제조위탁물 관련 실물 사진 및 제품 번호 】

			
48419-2H000	48526-2H000	48547-2H000	48565-2H000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 감액 행위

- (주)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너트 4종 제조를 위탁하면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 해당 기간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지나치게 감액” 했는지 여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판단하는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이 사건의 경우 적정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2

조치내용

- 공정위는 (주)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 (주)에이치티엠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업체명	업종	설립일	대표이사	2022년	
				자산총계	매출액
(주)에이치티엠	너트류 제조업	2003. 6. 2.	민필홍	7,177	4,399

※ 자료출처 : (주)에이치티엠 제출자료

2. 관련 법 조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 9. (생략)

③ (생략)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